

월요광장

그 한 사람의 마음



정봉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새벽을 달려 남도의 바닷가로 '해마 중'을 갔다. 풍광 얼어 있는 좌절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우뚝 솟아오른 해는 믿을직한 언약 같았다. 아픔과 차별과 눈물을 거두고 온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빌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다.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예감이다." 1973년 6월 3일 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토지'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토지' 1부를 쓰던 삼 년 동안의 심경을 밝히는 글이었다.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 있으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그것을 응시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나.. 새해 첫 마음

의 자리에 떠오른 문장이 어려웠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처절하다. 비정규직, 꽃다운 청년의 죽음, 위협의 외주화, 노동의 파편화, 소외되는 사람들, 죽음을 무릅쓴 일터, 우리들의 노동 조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 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구조적 혁신과 진짜 짚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이 깊은 슬픔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 막막하고 무기력해지는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답하는 책들을 읽는다. 존재가 희망이 되는 책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열린다. 2018년 많은 이들이 '올해 최고의 소설'로 꼽은 김탁환 작가의 '살아야겠다'가 그랬다. 소설은 2015년 여름의 메르스 사태를 환자들과 가족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메르스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아니,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마지막 남은 한 명의 메르스 환자로 분류된 김석주가 고립감에 홀로 우는 밤, 그 한 사람

의 마음을 그려 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질문 앞에서 무너지듯 눈물이 났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이라나.. 고열보다도, 구토보다도, 지구에 홀로 남은 듯한 고독이 가장 두려웠다고 말하지 않는가. 소설이 아니라면 세상과 격리된 채 바이러스 덩어리로 취급되었던 한 사내의 울음을 우리는 외면하고 말았을 것이다. 작가는 말한다. "삶과 죽음을 재수나 운(運)에 맡겨선 안 된다. 그 전염병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행운'은 얼마나 허약하고 어리석은가."

우리가 분명 함께 건너온 시간인데 결코 함께 겪어 온 일이 아닌 것들이 되어 버리는 현실들은 답답하다. 그럼에도 살아야겠다고, 함께 살아야겠다고 소설은 외친다. 그렇다면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만히 있지 말고 질문하라고. 그럼 내가 바뀌고, 그럼 세상도 바뀌기 시작한다고.. 원인의 원인을 찾아 더지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설가의 존재는 미더웠다. 따뜻하고 소미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혐오, 차별, 고용 불안, 재난 같은 사회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지를 밝히는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쓴 김승섭 교수의 말은 울림이 깊다. 재난은 기록되어야 하고 고통의 원인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다.

"아름다운 사회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그 좌절에 함께 분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각자도생의 사회, 운에 맡겨지는 삶에서 우리가 안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기록되지 않은 재난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엄기호 작가의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와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자 희망의 목소리다.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에 함께 대응해 주고, 타인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서로에게 연결됨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포개 주는 일은 조용히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려 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社說

광주시 그토록 정보 공개 꺼리는 이유 뭔가

광주시가 시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처리하거나 일부만 공개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참여 유도라는 정보 공개 제도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청구인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수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광주시에 접수된 정보 공개 청구 가운데 비공개된 사례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32건, 2017년 45건, 2018년에는 55건 등 5년간 170건에 달했다. 지난해 비공개 결정된 사례를 사유별로 보면 사생활 침해 19건, 영업상 비밀 침해 12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11건, 법령상 비밀 10건, 재판 관련 정보 등 2건, 국익 침해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분 공개' 역시 2014년 114건에서 지

난해에는 557건으로 급증했다.

일례로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지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28일이 지나서야 관리자 네 명의 이름만 공개했다. 상수도 부지 내 태양광 시설 계약 내용이나 면적, 임대료 및 발전 수익 배당금 등 나머지 사항은 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필연적으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본 현황이나 계약 내용 등을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정보 비공개는 필수가 되는 예외의 규정을 줄이고 심의 기간도 단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 시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이 그만큼 낮다는 증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 습지 사라지지 않도록

순천만습지가 '한국 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9년-2020년 우리나라 대표 관광 명소 '한국관광 100선'에 네 번 연속해서 포함된 것이다.

습지는 물을 정화하고 탄소를 저장해 온난화를 늦춘다. 전 세계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4조9000억 달러(약 1경6800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습지가 사라지거나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실 74곳과, 면적 감소 91곳 등 총 165곳에서 습지 훼손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 38%에 달하는 64곳이 사라지거나 면적이 줄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라진 습지로는 물넘어오개습지(광주), 봉황산습지(광

주), 유정리습지(광주), 문암습지(화순), 장곡습지(화순), 화순고인돌공원습지(화순), 주월산습지(보성), 파정지습지(보성), 초암산습지(보성), 궁성산습지(영암) 등이다. 면적이 감소된 습지로는 가락습지(광주)와 대촌습지(광주), 매월습지(광주), 남산습지(담양), 부흥습지(장성), 석포습지(영암) 등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습지 훼손이 경작지 이용이나 도로 건설 등 대부분 사람 손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습지는 민물이나 바닷물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린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를 훼손되는 습지 면적에 비례해 대체 습지를 조성해 전체 습지 면적이 줄지 않도록 하는 '습지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미래 세대에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고

더울수록 동물들이 작아진다



최종욱
수의사·유치공원 동물진료 담당

추울수록 동물들(포유동물)이 커진다는 말이 100년 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을 '베르그만과 알렌의 법칙'이라고 한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몸집은 커지지만, 반면에 말단 부위 즉 귀나 코 같은 것은 몸에 비해 작아진다는 것이다. 북극곰은 같은 곰 계열의 말레이곰이나 온대의 반달곰보다 3배 이상 크다. 북극여우나 북극토끼도 사막 여우나 초원토끼보다 훨씬 크다. 반면 귀는 사막여우와 초원토끼가 그들에 비해 훨씬 크다. 사슴도 북극사슴인 순목이나 엘크가 우리나라의 노루나 꿩사슴보다 3~4배는 더 크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론적인 배경은 추운 지방에서 생존하려면 몸

이 커야 바깥으로 노출되는 체표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야 피부 주름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웅크렸을 때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면적도 커진다. 그뿐 아니라 추운 지방 동물은 지방을 많이 비축해야 하고 털이 이중 삼중으로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발달을 위해선 영양분이 많은 육식 위주로 자주 섭취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몸이 커진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방계 사람이 남방계보다 고기도 많이 먹고 몸도 더 큰 편이다. 우리 역시 동남아나 아프리카 토착민들보다 몸이 더 큼을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더운 지방에 살려면, 몸이 크면 아무래도 행동도 부자연스럽게 되고 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늘을 찾는 데도 한참이 걸려야 하니 큰 동물이 살았더라도 멸종당하기 쉬웠을 것이다. 더운 지방에 살던 공룡의 멸종 원인을 대부분 운석 충돌로 인한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보고 있지만, 기후가 따뜻해 기생충이 창궐해 멸종했다는 이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공룡이 냉혈 동물이 아닌 온혈 동

물이었다면 그렇게 털도 거의 없는 몸으로 열대의 그 열기를 견뎌낼 수가 없었으리라. 온혈 동물이었다면 적어도 지금의 하마처럼 늘 물속에 살아야 했으리라. 그런데 냉혈 동물이라도 문제가 생긴다.

육식 공룡들은 엄청난 빠르기로 사냥을 했어야 했는데 냉혈 동물들은 순간 폭 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는 있지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최고의 포식자였던 티라노사우루스가 약이나 뱀 같은 냉혈원이었다고는 정황상 적절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진다.

같은 더운 지방이라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과 동남아시아의 밀림하고는 또 다르다. 사바나에선 우기와 건기가 있고 초원, 물, 사막, 숲 등이 혼재하기 때문에 큰 동물들도 나름대로 열을 잘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다.

아프리카의 기린은 높은 곳에서 서는 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코끼리나 하마는 지구상 가장 덥지가 커도 물이나 진흙 속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갈 수 있다. 뱀이나 육지거북 같은 파충류와 곤충류는 오히려 더운 지역에서 보다 큰 덩치와 맹독성을 자랑한다.

이 추운 곳 이론은 주로 포유류에만 적용된다. 아무튼 적어도 포유류의 대부분은 추울수록 더 커지고 기후가 더워질수록 더 작아진다.

최근에도 영국의 한 과학자가 고립된 곳의 야생 산양을 20년째 조사했는데 그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한가지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질 것 같은 파충류와 곤충들이 오히려 그 수가 적어지고 감소하고 있다.

그럼 그걸 먹고 사는 상위 포식자도 긴축으로 인해 언덕아 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또 다른 북방인 태고 적부터 잠복해 있던 고열 미생물은 갑자기 번성해 양서류들과 벌들을 죽이고 있다.

영화 '2012'처럼 빙하가 녹아서 한꺼번에 지구를 당장 쓸어 버리진 않더라도 우리 점점 더 작아질 것이고 곤충들은 사라질 것이며 미생물은 더욱 강력해질 조짐이 지구 곳곳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Cooling the earth!" 철클로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당장 행동해야 우리에 닥친 현실인 것이다.

기고

'광주형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신일섭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해년 새해 벽두 아침이다. 광주의 아침은 동 트는 무등산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즘같이 엄동설한의 겨울날이 계속 되면 주위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욱 눈에 띈다. 옛부터 복지(welfare)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곧 인간의 먹고 사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연결되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노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동력(일자리)이 필요했다. 중세 봉건시대 사회 복지 제도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에서도 구빈원 입소자들을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생산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 위기 타개를 위해 도입한 개념이었지만 1990년대 영국의 블레이크(Anthony C. Lynton Blair)에 이어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생산적 복지가 국정지표로 채택되면서 적극 도입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 정책은 일자리, 더 나아가 경제 정책과 순순한 구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대 복지 국가의 효시를 이룬 영국의 소위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는 경제학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시급한 경제 복구를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1942년 당시 전후 공황에 빠진 영국 국

민을 구제하고 사회 보장을 위한 이 보고서는 무상 의료 서비스와 실업 급여 제공, 최저 생계비 지원 등을 담야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언론에서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 제도라고 평하였다.

미국의 사회 복지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 제정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1930년대 대량 실업과 빈민 구제를 위한 사회 보험과 공적 부조에 관한 것이었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의 성공으로 루스벨트는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인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국가(연방정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와 일자리 정책은 복지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더욱 관심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이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노사 상생형 복지 모델로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1만 2천여 명이 넘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자동차 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청년과 취업생, 대학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앞세우기 보다는 양보와 타협, 배려의 정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듯이 사회 복지의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꼭 성공해야 한다. 일자리는 복지 생태계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값 일자리'라며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옮겨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지역 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광주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국가적인 중요 관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가 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닐까.

無等鼓

허먼 멜빌(1819-1891)의 대표작 '모비딕'은 미국 상징주의 문학의 걸작으로 꼽힌다. 인간과 고래의 싸움을 장쾌한 스케일로 그렸는데 화자(話者)이자 유일한 생존자인 이쉬마엘이 회상 형식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선악의 실체와 실존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한다. 모비딕이라는 흰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에이허브 선장은 무모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인물이다. 오랜 항해 끝에 흰고래를 발견하지만 사냥간의 사투는 안타깝게도 자신과 선원들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는 파멸로 귀결된다.

일본의 포경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귀담아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국제 해킹 그룹 '애니니머스'는 일본의 고래잡이를 신랄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일본의 비상식적 처사는 비단 고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동해상에 벌어진 '초계기 갈등'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북한 선박이 조난당했을 때 우리 광개토대원함이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당시 일 초계기는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하고

고래잡이

니, 이후 "한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에 조종당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인도적 활동을 방해한 위협적인 비행을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갈등은 늘 한일 양국을 긴장 관계로 몰아넣는다.

소설 '모비딕'에서 선장의 광기는 모든 선원과 자신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한계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을 형상화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광기에 대한 경고 의미가 더 강하다. "예지가 비애와 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비애가 광기와 똑같은 마찰을 빚어 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014년 남극해에서

도적 활동을 방해한 위협적인 비행을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바다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갈등은 늘 한일 양국을 긴장 관계로 몰아넣는다.

소설 '모비딕'에서 선장의 광기는 모든 선원과 자신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물론 한계에 도전하는 불굴의 정신을 형상화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식을 벗어난 광기에 대한 경고 의미가 더 강하다. "예지가 비애와 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비애가 광기와 똑같은 마찰을 빚어 왔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014년 남극해에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통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